

초서의 ‘나약한 수소’: 『기사 이야기』 다시 읽기

김현진 (서울대학교)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금은 제쳐두어야 하오.

내게는 진정 갈아야할 넓은 밭이 있는데

내 쟁기를 끄는 수소는 나약하니 말이오

나머지 이야기도 충분히 길답니다.

But al that thing I moot as now forbere.

I have, God woot, a large feeld to ere,

And wayke been the oxen in my plough.

The remenant of the tale is long enough. (*Knight's Tale* 885-88)¹⁾

제프리 초서(Geoffrey Chaucer)의 『기사 이야기』(*The Knight's Tale*) 서두에서 화자인 기사(Knight)가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의 원전 『테세이다』(*Teseida*) 1~2권에 해당하는 테세우스(Theseus)의 아마존 정벌기를 단 20행으로

1) 『기사 이야기』와 『방앗간 주인 이야기』는 두 작품을 포함한 『캔터베리 이야기』 단편 1(Fragment I)의 행수로 인용한다.

잘라 요약해 버리고 나서(865-84)²⁾ 덧붙이는 이 말은 조금만 고쳐 읽으면 공고 롭게도 요즘 초서 비평에서 『기사 이야기』가 차지하는 어정쩡한 위치를 적시하는 은유가 된다. 한때 『캔터베리 이야기』(*The Canterbury Tales*)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자 초서의 예술적 성취의 표본으로 여겨졌던 『기사 이야기』는 페미니즘 비평의 부상과 더불어 남성성의 신화가 폭로되고 해체된 뒤에, 즉 ‘황소’(bull)가 ‘불칸 수소’(ox)로 길들여진 뒤에 『캔터베리 이야기』의 쟁기를 앞서서 끌기에 너무 ‘나약한’ 작품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최근 페미니스트 연구들에서는 별 소득 없이 『기사 이야기』의 별거벗은 ‘나약함’을 다시금 꺼내놓고 이리저리 들추어 보거나, 즉 테베 전장의 ‘약탈자들’(pilours)처럼 “갑옷과 의복을 벗겨내기 위해 시신 더미를 뒤지거나”(To ransack in the taas of bodyes dede / Hem for to strepe of harneys and of wede; 1005-06), ‘나머지 이야기도 충분히 길다’는 것을 위안 삼으며 『기사 이야기』를 아예 논의에서 ‘제쳐두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초서의 프로젝트에 그럴듯한 현재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캔터베리 이야기』가 왜 하필 『기사 이야기』로 시작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는 무척 어려워졌다. 이 글은 초서 비평사의 연장선에서 최근 비평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보고 『캔터베리 이야기』를 여는 첫 이야기로서 『기사 이야기』가 갖는 의미를 재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우연에 의해서든 필연에 의해서든”(by aventure or destyne; *Knight's Tale* 1465) 필자와 앞선 평자들의 견해가 적잖이 중첩되는바 새로운 해석을 형식을 갖추어 온전히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비평을 선별적으로 조감(照鑑)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재점검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1. 질서와 무질서의 투쟁

초서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접근이 본격화된 1990년대 초 이전의 『기사 이야

2) 그나마 마지막 행(884)은 『테세이다』에 없는 내용이다.

기』 비평사를 단순하지만 간편하게 요약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찰스 머스캐틴(Charles Muscatine)과 리 패터슨(Lee Patterson)을 대비시키는 것이다. 1951년에 처음 발표된 머스캐틴의 논문 『초서의 『기사 이야기』의 형식, 짜임새와 의미』(“Form, Texture, and Meaning in Chaucer’s *Knight’s Tale*”)는 신비평식 초서 읽기의 결정관으로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이론의 여지 없이 『기사 이야기』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해석으로 남아 있다.³⁾ 반면에 중세문학 연구의 스티븐 그린블랫(Stephen Greenblatt)이라고 할 만한 패터슨의 1991년 저서 『초서와 역사의 주체』(*Chaucer and the Subject of History*)에 포함된 『기사 이야기』에 대한 장(165-230)은 분석 자체도 탁월하지만 머스캐틴과 나란히 놓고 읽으면 1980년대에 문학 비평의 지형이 급전하면서 『기사 이야기』를 읽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또는 바뀌지 않았는가)를 선명히 알 수 있어서 흥미로운 글이다.

머스캐틴의 연구는 『기사 이야기』를 “일관되고 온전한 의미”(a coherence and fullness of meaning; “Form” 911)를⁴⁾ 지닌 문학작품으로 읽을 수 있는 패러다임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기존 평자들의 논의가 사실주의적 인물 묘사의 부재를 『기사 이야기』의 결함으로 지적하거나(e.g. Hulbert) 『기사 이야기』의 의미에 구애받기보다 형식 그 자체로 즐겨야 한다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던(e.g. Root) 때에 머스캐틴은 신비평의 갑옷을 입고 나와 “형식과 문체가 너무 잘 기능해서 직접 의미를 지칭함”(form and style are so functional that they point directly to the meaning; *Chaucer* 177)을 설파하여 『기사 이야기』를 일약 초서 연구의 중심으로 끌어 들이는 데 성공했다.⁵⁾ 머스캐틴

3) 머스캐틴은 이 논문을 수정하고 첨삭해서 1957년 자신의 기념비적인 저서 『초서와 프랑스 전통』(*Chaucer and the French Tradition*)의 일부로 수록하였다(175-90). 필자는 머스캐틴의 최종 의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1951년 논문보다 『초서와 프랑스 전통』이 독자 입장에서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후자에서 인용을 하였다. 그 대신 1951년 논문에서 해당하는 부분(물론 단어 하나하나까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을 찾아 참조를 위해 쪽수를 병기하였다.

4) 이 부분은 『초서와 프랑스 전통』, 즉 1957년 판에는 나오지 않는다.

5) 1957년 판에만 있는 이 부분은 ‘형식이 의미’(form is meaning)라는 클레런스 브룩스(Cleanth Brooks)의 신비평 ‘신조’(article of faith)의 재천명이라 할 수 있다(72).

은 『기사 이야기』를 “이야기나 정지된 그림이 아니라 차라리 일종의 시적인 가
장행렬”(neither a story nor a static picture but rather a sort of poetic pageant;
181; cf. “Form” 919)로 읽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작품의 ‘형식과 문체’를 특징짓
는 독특한 구조적 ‘질서’가 중심인물 테세우스가 이야기 속에서 대변하는 인간사
와 우주의 ‘질서’와 조응하면서 “귀족적인 삶의 본질”(the nature of the noble
life; 181; cf. “Form” 919)이라는 주제를 구현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질서를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상의 굴곡과 내용상의 ‘혼돈’ 또는 ‘무질서’의 존재
가 오히려 작품에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깊이를 더해준다고 보았다.

이 시의 구조를 특징짓는 질서는 또한 시의 의미의 핵심이기도 하다. 묘사되는
사회는 형식이 의미로 가득 차 있고 삶이 엄숙하고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며 삶
의 패턴이 그 자체로서 우주 질서의 반영, 아니 차라리 재현인 곳이다. 이러한
삶의 개념에 원근감과 깊이, 진지함을 주는 것은 두려우리만치 적대적인 요소,
즉 혼돈 또는 무질서에 대한 부단한 의식인데, 이 혼돈/무질서는 가장 확신에
찬 순간에조차 삶을 끝없이 위협하는 가능성으로 존재하며 시의 플롯의 불규
칙한 반전을 통해 명백히 예시되고 시의 짜임새에 깊이 각인되어 시 안에서 질
서의 패턴과 맞닥뜨린다.

Order, which characterizes the structure of the poem, is also the heart of its
meaning. The society depicted is one in which form is full of significance,
in which life is conducted at a dignified, processional pace, and in which
life’s pattern is itself a reflection, or better, a reproduction, of the order of
the universe. And what gives this conception of life its perspective, its depth
and seriousness, is its constant awareness of a formidably antagonistic
element—chaos, disorder—which in life is an ever-threatening possibility,
even in the moments of supremest assuredness, and which in the poem falls
across the pattern of order, being clearly exemplified in the erratic reversals
of the poem’s plot, and deeply embedded in the poem’s texture. (181; cf.
“Form” 919-20)

다시 말해 머스캐틴은 『기사 이야기』가 형식과 내용면에서 모두 질서와 무질서 사이의 투쟁 또는 “귀족적인 구상과 혼돈 사이의 투쟁”(the struggle between noble designs and chaos; *Chaucer* 190; cf. “Form” 929)을 재현한다고 본다. 질서 대 무질서의 대결구도를 부각시키는 이 해석이 비평사에 끼친 영향은 실로 지대한 것이어서 머스캐틴 이후 『기사 이야기』 연구의 대다수는 어떤 전체에서 출발하던 결국 초서가 질서의 편에 섰는지 무질서의 편에 섰는지, 질서의 수호자 테세우스를 옹호하는 입장이었는지 비난하는 입장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McAlpine xxxiii-xliiii; Patterson 165-67).

패터슨의 글은 이러한 머스캐틴의 유산에 대한 거리두기로부터 시작한다. 패터슨은 신역사주의자이자 맑스주의자답게 무질서에 맞선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질서의 승리를 강조한 머스캐틴의 해석이 한편으로 형식주의적이고 탈역사적인 신비평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며 다른 한편으로 “냉전 시대 미국 자유주의의 이상”(the ideals of a cold-war American liberalism)과 맞닿아 있음을 지적한다 (165-66).⁶⁾ 그리고 머스캐틴과 그의 추종자들(따라서 신비평가/보수주의자들)이 탈역사화한 『기사 이야기』를 재역사화하는 것이 자신의 과업임을 천명한다 (167-68). 『기사 이야기』를 “후기 중세 귀족 문화의 핵심에 자리 잡은 모순”(the contradictions at the heart of the aristocratic culture of the later Middle Ages; 222)의 맥락에서 읽으려는 패터슨의 기획은 범박하게 정리하면 1980년대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그린블랏의 ‘자아 만들기’(self-fashioning) 이론에 요한 호이징하(Johan Huizinga)의 해묵은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현실도피적 기사도론을 접목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패터슨은 초서 당대에 ‘기사도 정체성’(chivalric identity)이 “빈틈없이 지켜지고 집요하게 주장되었지만”(jealously guarded and relentlessly asserted), 즉 그린블랏의 근대적 자아처럼 의식적으로

6) 데이빗 에어즈(David Aers) 역시 『기사 이야기』를 맑스주의자 관점에서 읽는다 (174-95). 하지만 에어즈의 해석은 역사주의라 이름 붙이기 미흡할뿐더러 패터슨의 해석처럼 정교하지도 못하다. 에어즈는 『기사 이야기』를 테세우스의 군국주의와 마키아벨리즘에 대한 초서의 비판적 탐구로 여긴다.

만들어지고 가꾸어졌지만, 결국 “침식과 쇠퇴에 취약할”(vulnerable to depredation and decay; 186) 수밖에 없었다고, 즉 호이징하가 말한 “현실의 고통스러운 불완전함”(painful imperfection of reality; 69) 속에서 변화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한 뒤에 『기사 이야기』가 바로 이 “기사도 정체성의 위기”(the crisis of chivalric identity)를 절묘하게 포착한다고 역설한다. “테세우스와 [화자인] 기사의 합리성”(Theseus’s and the Knight’s rationality)이 “아르시테와 팔라몬의 편협해진 의식과 병적인 집착”(the narrowed consciousness and obsessive fixation of Arcite and Palamon)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230) 『기사 이야기』의 구조적인 모순이 기사도 이데올로기의 ‘자기 정당화’(self-legitimation), ‘자기 정의’(self-definition; 169), ‘자축’(self-congratulation; 209)의 수사가 지니는 자기과파적인 속성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것이다.

패터슨의 해석은 이처럼 신비평적 과거 청산에서 시작해 신역사주의적 맥락화로 나아가지만 이론의 세례와 역사의 장식을 한 꺼풀 걷어내고 나면 놀랍게도 그 자신이 극복의 대상으로 지목한 머스캐틴의 모델과 무척 닮아있음이 드러난다. 포장만 바뀌었을 뿐 패터슨의 논의 또한 질서와 무질서의 대립구도를 주 골격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패터슨이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이야기가 끈질기게 드러내는 불안정한 의미와 기사가 장려하고자 하는 또 다른 더 확증적인 주장 사이의 … 투쟁”(a struggle . . . between the unsettling meanings [the tale] insistently expresses and those other, more confirmatory assertions the Knight seeks to promote; 168), “테베적인 과거”(a Theban past) 또는 “테베의 퇴행적인 반복성”(a regressive Theban repetitiveness)과 “아테네적인 현재”(an Athenian present) 또는 “아테네 문명화 과업의 합목적적 직선성”(the purpositive linearity of the Athenian *mission civilisatrice*) 사이의 갈등(200-01), “역사적인 현실이 이미 성취되어 운명이라는 질서 속에 고정되어 있다는 관념과 역사가 근본적으로 미래발현적이어서 무작위와 우연의 지배를 받는다는 관념 사이의 변증법”(a dialectic between a conception of historical reality as already accomplished, and hence fixed within an order of destiny, and a conception of history as radically

prospective, and hence subject to randomness and accident; 213), “14세기 말 기사도 이데올로기와 초서 당대 영국의 실제적인 삶 사이의 … 간극”(the gap . . . between late fourteenth-century chivalric ideology and the facts of life in Chaucer’s England; 230) 등은 모두 머스캐틴식의 질서/무질서의 이분법에 대해 신역사주의적 환유(metonymy), 즉 이름 바꾸기를 시도한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머스캐틴이 테세우스의 편에 서서 질서의 위대함에 공감한다면 패터슨은 질서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는 무질서의 존재에서 초서 문학의 역동성을 찾는 것이 다를 뿐이다.

머스캐틴과 패터슨은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기사 이야기』를 묘하게 자신의 비평 작업에 대한 알레고리로 만들어 버린다는 데서도 주목할 만한 공통점을 보인다. 머스캐틴이 읽은 『기사 이야기』가 패터슨의 지적처럼 무질서해 보이는 기호들 사이에서 질서를 확립하는 “신비평 이데올로기의 예시”(an exemplification of New Critical ideology; 165)가 될 수 있다면 패터슨이 읽은 『기사 이야기』는 곧 패터슨 자신의 비평적 딜레마에 대한 적절한 알레고리가 될 수 있다. ‘테베적인 과거’를 ‘아테네적인 현재’로 대체하려는 테세우스와 화자의 분투가 끝내 ‘테베의 퇴행적인 반복성’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신비평적인 과거’를 극복하고 ‘신역사주의적인 현재’로 나아가려는 패터슨의 노력 역시 어느 지점에 이르면 질서와 무질서의 긴장 관계를 끊임없이 변주하는 가운데 ‘신비평의 퇴행적인 반복성’에 수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기사 이야기』를 읽는 방식은 머스캐틴에서 시작해 패터슨에 이르기까지, 즉 신비평의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 신역사주의의 여름에 접어들기까지 40여 년 동안 한편으로 대단한 변화를 겪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아무리 간편함을 방패삼는다 해도 『기사 이야기』와 관련된 현대 비평의 흐름을 머스캐틴과 패터슨만 가지고 제대로 정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20세기 후반 문학이론의 복잡한 가계도를 신비평과 신역사주의 사이의 관계만 따져서 자로 줄긋듯이 단순히 그릴 수 또한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그가 그 안개 낀 시절에 그렇게 청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에 더 놀라워해

야 할지 우리가 이 청명한 시대에 그의 뒤를 그렇게 비틀거리며 따라가는 것에 더 놀라워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머스캐틴의 학문적인 아우라가 절대적이었는가 하면 그것 또한 아니다. 사실 “만물의 궁극적인 질서에 대한 믿음”(faith in the ultimate order of all things; 190; cf. “Form” 929)이 『기사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설파하는 주제라는 머스캐틴의 주장을 지금 이 시점에서 끝이곧대로 받아들일 독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는 세상과 문학을 보는 눈이 너무 복잡해지고 ‘무질서’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캐틴과 패터슨의 궤적을 따로 떼어 살피는 작업이 의미 있는 것은 『기사 이야기』에 대해 주제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즉 『기사 이야기』의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독자가 머스캐틴의 모델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델을 비판하고 극복하려 한 만큼 시대의 요청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한 패터슨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광범위한 역사적인 고증에 치밀한 텍스트 분석을 결합시킨 패터슨의 연구 이후에는 질서라는 이름으로 『기사 이야기』에 새로운 논의를 더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으며 그가 변용한 질서 개념을 무시하고 『기사 이야기』의 역사적인 의미를 논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다.

더는 할 말이 없다.

Ther is namoore to telle. (974)

Ther is namoore to seye. (2366)

There is namoore to seyn. (2601)

화자인 기사가 습관처럼 내뱉는 이 한 마디가 『기사 이야기』 읽기에 불행히도(!) 머스캐틴보다 반세기쯤 늦게 (그리고 패터슨보다 반세대를 늦게) 뛰어든 독자가 보일 법한 반응이라면 그 첫 번째 이유는 (현재 정전 비평이 총체적으로 직면한 문제가겠지만) 남들이 이미 말을 할 만큼, 아니 너무 많이 해서일 것이다.

2. 참을 수 없는 질서의 부적절함

페미니즘이 초서 연구의 주류에 진입한 것은 대략 패터슨을 위시한 신역사 주의자들의 초서 읽기가 완성기/포화기에 접어든 시점에서이다.⁷⁾ 1989년 최초의 주목할 만한 (그리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페미니스트 초서 연구서인 캐롤린 딘쇼(Carolyn Dinshaw)의 『초서의 성 시학』(*Chaucer's Sexual Poetics*)이 출판된 이후 2000년까지 거의 매년 '여성'(women) 또는 '젠더'(gender)를 제목으로 내건 모노그래프가 세상에 나오면서 초서 학계는 명실상부한 페미니즘 전성시대를 맞이한다.⁸⁾ 하지만 페미니즘의 부상은 곧 머스캐틴에서 패터슨까지 이어진 『기사 이야기』 전성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가 되었다.

처음부터 『기사 이야기』는 페미니스트 평자들에게 너무 대놓고 남성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래서 너무 뻘한 작품이었다. 머스캐틴이 기사도의 전범으로 예찬한 테세우스는 남성의 지배를 거부한 아마존 여성들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 여왕인 히폴리타(Hippolyta)를 (작품에 명시되지 않은 수상한 방법으로) 아내 삼은 인물이며, 테세우스의 전쟁 포로인 팔라몬과 아르시테는 자신들의 존재도 모르는 히폴리타의 동생 에밀리(Emily)에 대한 일방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사랑의 봉사라는 미명 아래 서로 질시하고 다투다가 나중에는 죽어라 싸우기까지 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에밀리의 보호자 격인 테세우스, 하늘의 신들, 심지어 화자인 기사조차 에밀리의 감정과 의사에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어서 이 불행한 여주인공은 2250행에 이르는 작품 속에서 철저히 정형화되고 대상화되다가 단 한 차례 34행에 걸쳐(2297-2330) 입을 열 기회가 주어질 뿐이다. (물론 이 한번의 기회를 통해서 에밀리가 독신으로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7) 초서 연구에 관한 한 신역사주의는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사이에 최전성기를 누렸다. 예컨대 패터슨의 책 말고도 스트롬(Paul Strohm, 1989), 냅(Peggie Knapp, 1990)의 주요 저서가 이 기간에 출판되었다.

8) E.g. Martin (1990), Mann (1991), Hansen (1992), Crane (1994), Delany (1994), Laskaya (1995), Weisl (1995), Rigby (1996), Cox (1997), Percival (1998), Sturges (2000). 물론 논문까지 치면 수치는 걸잡을 수 없이 불어난다.

의미심장할 수 있다.) 더구나 에밀리는 테세우스에게서 아르시테에게로, 그리고 다시 팔라몬에게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리품으로 유통되는 가운데 남성들 사이에서 금치산자 취급을 받고 정치 도구로 활용되는 수모를 겪는다. 머스캐틴의 모델을 적용하면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질서인데 이번에는 질서의 역사적인 취약성이 아니라 가부장제적인 속성, 즉 참을 수 없는 부적절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과 젠더가 초서 연구의 쟁점이 되는 순간 『기사 이야기』는 산성 용액에 노출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숨기고 있던 붉은 약점을 바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캔터베리 이야기』 또는 초서 문학 전반을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혹은 페미니스트 관점을 포함해서) 조망하려는 평자들이 이 ‘문체적인’ 텍스트를 대하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기사 이야기』를 아예 논의에서 배제하거나(e.g. Cox; Dinshaw), 연구 방향을 다변화해 『기사 이야기』를 논의할 때 여성이나 젠더 외에 다른 쟁점을 끌어들이는 수가 있다(e.g. Blamires; Rigby).⁹⁾ 물론 이런 식으로 해석을 비껴가는 것은 『기사 이야기』의 문제점이 눈에 띄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그래서 해석의 욕구를 느끼지 못하거나 해석의 개입이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평자들은 『기사 이야기』의 가부장제 질서에 대해 그래도 무언가 더 할 말이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예컨대 프리실라 마틴(Priscilla Martin)은 호부(好否)가 분명하고 친절한 에밀리씨가 자신의 의사가 끊임없이 무시되고 거부되는 가운데 화자의 비아냥거림처럼 ‘운명의 호의’(the favour of Fortune; *Knight's Tale* 2682)를 입은 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일리아드』에서처럼 『기사 이야기』에서도 여전히 승자의 전리품에 불과한 여성들이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It is difficult to see what else they can do when, in the *Knight's Tale*, as in the *Iliad*, they are still the victor's prize; 52)는 진단을 내린다. 반면에 일레인 헨슨(Elaine Tuttle Hansen)은 『기사

9) 후자에 해당하는 평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없다.

이야기』가 가시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서로 다른 남성들을 조화와 애정으로 묶는 특정한 동질감”(a certain sameness that unites different men in harmony and affection; 214)을 부추기며 “여성의 위험한 과잉”(the dangerous female excess; 223)을 적절히 통제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장르의 차이, 화자의 계급의 차이를 넘어서 『방앗간 주인 이야기』(*The Miller's Tale*)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여성관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앤젤라 웨이즐(Angela Jane Weisl)은 『기사 이야기』에서 여성/혼돈과 연계해 남성 중심의 서사시적 질서를 위협하는 듯 보이는 로맨스 장르가 결국 서사시 장르와 다름없이 여성을 체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구조, 즉 여성과 장르 사이의 “결단력 겨루기에서 장르가 승리하는”(in a contest of determination, the genre wins; 61) 구조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들의 해석은 헨슨의 말처럼 “너무 흔히 보편적이거나 초월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문제가 구체적인 맥락에서 갖는 특수성”(the particularities of the problem in a local instance that is far more often taken to be a universal or transcendent one; 287), 즉 『기사 이야기』의 차별성을 설명하는 것을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헨슨 자신의 글을 포함해) 거의 예외 없이 가부장제 질서의 무차별적인 보편성을 재확인하는 결과로 귀착된다. 페미니즘의 태양 아래 『일리아드』와 『기사 이야기』, 서사시와 로맨스, 『기사 이야기』와 『방앗간 주인 이야기』, 로맨스와 파블리오(fabliau) 사이의 차이점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고 젠더화된 사회의 ‘보편적이거나 초월적인’ 억압 구조만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일련의 남성적인 권위, 즉 초서, 기사, 신들, 테세우스, 팔라몬, 아르시테의 권위”(a chain of masculine authority—Chaucer’s, the Knight’s, the god’s, Theseus’, Palamon’s, Artite’s; Weisl 61)는 전혀 구별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린다. 이처럼 『기사 이야기』에 대한 페미니스트 읽기는 대부분 머스캐틴이 말한 보편적인 질서의 승리를 당연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머스캐틴이 그 승리를 위대하다고 본 반면에 페미니스트들은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본 것이 다르다면 다르다.

물론 앤 래스캐야(Anne Laskaya)처럼 『기사 이야기』를 관장하는 질서의 위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평자도 있다. 래스캐야 역시 “초서가 묘사하는 남성과 여

성의 관계가 『기사 이야기』에서 대단히 정형화되어 나타난다”(his depiction of men’s relationships with women are very stereotyped in the *Knight’s Tale*)는 것과 “『기사 이야기』 속의 여성이 남성에게 의해 자신의 세계를 통제받는 ‘존재’”(women in the *Knight’s Tale* are “creatures” whose worlds are controlled by men; 74)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누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래스카야는 화자인 기사의 시각과 작가 초서의 시각 사이에서 아이러니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다른 페미니스트 평자들과 구별된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여성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운명의 변전, 즉 무질서가 남성적인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힘을 갖는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도 여타 페미니스트들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¹⁰⁾

운명, 숙명, 유전(流轉), 변화는 중세 문화뿐 아니라 우리 문화에서도 모두 전형적으로 여성적인 것과 연결되는 특징들이다. 그 역으로 상정된 남성적인 것은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머스캐틴이 말한 “끝없이 위협하는 혼돈의 힘을 저지하는 방벽”이 된다. 남성적인 것은 ‘법’이고 ‘체계’이며 테세우스가 세상에 부여하려 한 ‘패턴’이다. 여성적인 것인 운명의 기운이 승할 때, 즉 인간의 의지가 통제력을 잃을 때 테세우스는 우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상실(아르시테의 죽음)을 슬퍼한다. 이렇게 해서 여성적인 것은 이야기 속에서 남성적인 것을 혼란에 빠뜨린다. 비너스가 마스를 혼란에 빠뜨리듯이 말이다.

Fortune, fate, flux, and change are all features our own culture, as well as medieval culture, associates typically with the feminine. The masculine, seen as opposite, is solid and stable, what Muscatine calls “a bulwark against the ever-threatening force of chaos.” The masculine is the “law,” the “edifice,”

10) 크레인(Crane) 역시 『기사 이야기』에서 여성적인 것이 비논리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모험’의 속성과 연계되어 남성적이고 확일적인 서사를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169-85). 하지만 크레인은 ‘젠더’, ‘로맨스’, ‘모험’이라는 세 개의 개념 사이에서 목적이 분명치 않은 논의의 곡예를 하는 가운데 정작 왜 여성 또는 여성적인 것이 “이야기의 형이상학적인 구도를 그렇게 어지럽히는”(so disruptive of the tale’s metaphysical design; 183)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못한다.

the “pattern” Theseus tries to impose on the world. And when Fortune, the feminine, forces her ascendancy, when the human will is unable to control, Theseus is overcome with depression and grieves his loss. So the feminine disrupts the masculine in the tale, just as Venus does Mars. (71)

이렇게 보면 래스캐아가 『기사 이야기』에서 찾은 질서의 모델은 머스캐틴의 것보다 패터슨의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래스캐아에 따르면 “통제는 가능하지만 그만큼 기만적인 것이고 ... 영웅적인 것은 가능하지만 또한 취약하다”(control is possible, but it is equally an artifice . . . the heroic is possible, but it is also tenuous; 77). 돌려 말하면 가부장제 질서 역시 무질서한 역사의 힘 앞에서 난공불락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으로 『기사 이야기』를 읽는 또 다른 방법은 이 작품을 아예 회끈하게 여성우호적인 텍스트로 만들어버리는 것인데 이 ‘헤라클레스의 과업’(Herculean labor)에 도전한 유일무이한 평자는 다름 아닌 질 만(Jill Mann)이다. 만은 여성성/수동성과 남성성/능동성 사이의 ‘무익한 대비’(sterile antithesis; 185)를 반복하는 일부 중세 연구자들의 대동소이한 페미니스트 읽기의 효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초서 비평에서 페미니즘이 해야 할 일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페미니즘이 초서 연구에 기여할 바가 있다면 그것은 초서가 생각하지 않았거나 한 쪽으로 제쳐 두었거나 자신의 역사적인 위치 때문에 인식하지 못한 것을 드러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텍스트에 이미 존재하는 것의 온전한 의미를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If feminism has a contribution to make to Chaucer studies, it is not because it reveals what Chaucer did not consider or left to one side or was prevented by his historical position from perceiving; it is rather that it enables us to see the full significance of what is already there in his text. (3-4)

우리 눈에 뵈히 보이는데 초서가 시대의 제약으로 인해 보지 못한 것 또는 보지

않으려고 한 것을 탓하기보다 초서가 볼 수 있었던 것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 생산적인 논의라는 이 당연한 주장은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초서 연구, 나아가 현재의 유리한 고지에서 과거를 내려다보며 맥락화하는 모든 연구가 빠지기 쉬운 맹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막상 만이 대안으로 제시한 해석은 대단히 설득력 있지는 않다. 만은 다수의 페미니스트들이 별 볼 일 없어 한 『기사 이야기』를 초서의 페미니스트 혹은 ‘페미니이징’(feminizing)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작품으로 평가한다. 만에 따르면 남성적인 질서의 수호자로 출발해 차츰 여성적인 자질인 연민을 내면화해가는 ‘여성화된 영웅’(feminised hero) 테세우스는 “초서가 능동성과 수동성을 남성/여성의 역할 구분이 없는 온전히 인간적인 이상으로 통합한 것”(Chaucer’s careful integration of activity and passivity into a fully human ideal that erases male/female role-divisions; 185)의 가장 완벽한 예이다. 하지만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나려다 또 다른 스테레오타입에 빠지는 바스의 여장부(Wife of Bath)를 은근히 비판하고, 아내에게 외간 남자와 한 약속을 몸 바쳐 지키라고 중용하는 아르베라구스(Arveragus)를 안내심의 표본으로 칭찬한 뒤에, 에틸리의 ‘부차적인’(minor; 180) 역할을 인지하면서도 테세우스의 ‘여성화된 남성성’(feminised masculinity)을 근거로 여성이 초서의 세계관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독자들은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페미니스트 캠프에 합류하기 전에 이미 만의 학문적인 입지가 확고부동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만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다라면 그의 초서 읽기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훨씬 더 부정적이었을지도 모른다.¹¹⁾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기사 이야기』 읽기는 이처럼 해석의 양극화 현상을

11) 발레리 앨런(Valerie Allen)은 만이 현대 페미니즘 비평의 전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크레인 역시 여성성의 미명 아래 남성성만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의 『기사 이야기』 읽기에 의문을 제기한다(21, 29n, 195-96). 반면에 매리 커루서즈(Mary J. Carruthers)는 만의 책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다. 만과 커루서즈가 앨런, 크레인보다 한 세대쯤 위의 학자들이라는 점을 알고 나면 이들의 엇갈린 반응은 더욱 흥미로워진다.

보인다. 스펙트럼의 한 끝에서는 대다수 평자들이 운집해 테세우스가 대변하는 질서의 '권위'가 여성을 철저히 억압하고 통제함을 유언무언으로 규탄하는 반면에 다른 한 끝에서는 '권위' 있는 노학자가 홀로 서서 그 질서가 여성적이며 그렇게 때문에 휴머니즘적이고 페미니즘적인 것이라고 외친다. 가부장제 질서의 나신을 바라보며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고 그 나신이 가부장제임을 아예 부정하는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만 보라고 주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두 극단 사이에 열려있는 해석의 중간지대가 있다면 래스카야처럼 (그리고 패터슨처럼) 질서가 절대적이지 않을 가능성, 즉 “끝없이 위협하는 혼돈의 힘”에 잠식당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정도일 것이다.

더 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What nedeth wordes mo? (1029)

오늘날 『기사 이야기』를 읽는 독자가 이런 반응을 보이기 쉽다면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기사 이야기』가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의미를 (재)생산하기 쉽지 않은 텍스트라는 데 있다. 이 의미의 곤궁함은 논의의 초점이 젠더에서 '섹슈얼리티'(sexuality)로 옮겨간 포스트페미니즘 시대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사 이야기』는 '퀴어 이론'(Queer Theory)의 관점에서든 딱히 할 말이 많지 않은 텍스트이기 때문이다.¹²⁾

12) 글렌 버거(Glenn Burger)와 수전 쉬버노프(Susan Schibanoff) 모두 『방앗간 주인 이야기』와 연계해 『기사 이야기』를 스쳐 지나가듯 언급할 뿐이다. 버거는 “『방앗간 주인 이야기』가 이성애를 규범으로 삼는 『기사 이야기』의 성 정치학을 퀴어화한다”(the tale queers the heteronormative sexual politics of the *Knight's Tale*; 34)고 본다. 반면에 쉬버노프는 이브 셋지웁(Eve Kosofsky Sedgwick)의 이론에 근거해 『기사 이야기』에서 에밀리가 남성 간의 유대를 돈독하게 해주는 '퀴어 미끼'(queer decoy; 52)의 역할을 함을 지적한다.

3. 무질서의 시학

그러면 『기사 이야기』는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현재적 관심사를 반영하면서 만의 제안처럼 (하지만 만과 달리 자신의 소망을 작품에 무리하게 투사하는 것을 피하면서) 초서의 “텍스트에 이미 존재하는 것의 온전한 의미를 볼 수” 있을까. 나아가 『캔터베리 이야기』 전체의 ‘온전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기사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기사 이야기』는 머스캐틴처럼 질서에 무게를 두기보다 패터슨처럼 무질서의 잠재력에 주목해서 읽어야 한다. 그리고 래스캐아가 간파했듯이 그 무질서의 영역에 여성성 또는 여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사 이야기』를 ‘온전히’ 읽기 위해서는 또한 『캔터베리 이야기』가 바로 이 무질서의 시학을 구현한다는 점, 따라서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기사와 테세우스의 노력이 『기사 이야기』 자체의 논리에 의해서 뿐 아니라 이어지는 다른 이야기들의 맥락에서도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상이 필자가 『기사 이야기』를 다시 읽고 “즐겁고 조용한 상념의 범정에 지난날의 기억을 불러 세워” 얻은 대략의 결론이지만 『기사 이야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읽기 힘든 이유를 여태 장황히 설명한 뒤에 이제 새삼 총체적인 해석을 시도해 딱히 독창적일 게 없는 논지를 시시콜콜 뒷받침할 생각은 없다. 다만 “더는 할 말이 없다”면서 이야기를 꾸역꾸역 이어가는 기사처럼 필자 역시 몇몇 중요한 쟁점에 대해 다시 정리하고 덧붙일 것들이 있다.

『기사 이야기』는 한편으로 무질서한 세상을 인위적인 질서의 틀 안에 짜 넣으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틀이 “끝없이 위협하는 혼돈의 힘”을 저지하기에 턱없이 모자람을 교묘하게 드러내는 작품이다. 인위적인 장치로 예측 불가능한 현실을 제어하려는 노력이 실현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바로 테세우스의 원형경기장이다. 수전 크레인(Susan Crane)이 제레미 벤섬(Jeremy Bentham)·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원형교도소’(Panopticon)에 비유한, 따라서 사회의 일방적인 시민 감시 체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본(34-36) 원형경기장은 팔라몬과 아르시테의 파괴적인 에너지를 길들이고 제도화하려는 테세

우스의 구상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머스캐틴의 지적하듯이 물리적인 구조에서부터 완벽한 질서를 구현하는 이 원형경기장 안에서는 모든 일이 흠잡을 데 없이 격식과 균형을 갖추어 진행되고 통제된다(179-80). 테세우스의 사법권을 유린하며 들판에서 미친 짐승처럼 소득 없는 싸움을 벌이던 팔라몬과 아르시테는 이 경기장에서 각각 100명의 기사를 거느리고 테세우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인된 에밀리 쟁탈전을 벌인다. 하지만 그들이 야기한 혼란상을 질서의 둥근 테두리 안에 넣어 이성적인 합의에 도달하려 했던 테세우스의 노력은 끝내 수포로 돌아간다. 마상시합의 승자로 등극한 아르시테가 운명의 장난으로(또는 신들의 농간으로) 그 자리에서 허탈하게 목숨을 잃어, 즉 그가 공들여 설계한 질서가 세워지는 순간 바로 무너져버려 원형경기장이 존립 이유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테세우스가 추구하는 질서가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는 원형경기장 안에 세워진 세 신전의 모습에서도 잘 드러난다. 테세우스는 경기장 동문, 서문, 북문 위에 각각 비너스(Venus), 마스(Mars), 다이애나(Diana)의 신전을 세우고 그 안에 해당하는 신의 조상(彫像)과 함께 각 신이 인간사에 미치는 영향을 예시하는 벽화를 설치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벽화가(그리고 다이애나 신전의 경우에는 조각 또한) 주로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재현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각 신전은 원형경기장과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인위적인 틀에 짜 넣어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원형경기장이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합리적인 질서를 부여할 수 없듯이 신전 또한 그 안에 가둔 무질서의 이미지를 완전히 무력화하지는 못한다. 패터슨의 지적처럼 원형경기장과 신전은 모두 ‘인간의 통제’(human control; 224)를 상징하지만 신전 벽에 그려진 광경은 거꾸로 그런 통제가 불가능함을 말해준다. 즉 “테세우스는 자신의 신을 상상할 힘을 가지고도 자신의 무력함밖에 상상할 수 없고”(Endowed with the power to imagine his own gods, Theseus is nonetheless able to imagine only his own helplessness), 기사는 “면밀한 그림 묘사를 통해 신전에 그려진 장면을 통제할 수 있음을 주장

하지만 묘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완벽하게 자신이 묘사하는 이미지의 지배를 받는다”(Although his careful ecphrasis asserts his control over the painted scenes of the oratories, as his account proceeds he falls more and more thoroughly under the domination of the images he describes; 224).

무질서한 벽화 속의 이미지를 에워싸는 신전의 물리적인 구조 또한 테세우스의 질서에 대한 집착과 그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세 벽화 가운데 가장 어둡고 파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마스 신전의 벽화를 예로 들면 신전이라는 공간 안에 벽화가 있고 벽화 안에 다시 마스의 신전과 주변 풍경이 그려져 있으며 이 벽화 속의 신전 안에서 온갖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¹³⁾ 다시 말해 테세우스는 무질서한 세상을 전쟁의 신의 신전에 넣고 그 신전을 그림 안에 넣고 그 그림을 자신이 만든 또 다른 신전 안에 넣은 것인데, 이렇게 겹겹이 틀을 만들어 “두려우리만치 적대적인 요소”를 차단하려 한 것 자체가 바로 뿌리 깊은 불안감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이 불안감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질서의 승리를 증언해야 할 아르시테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발에서 가슴까지 죽음의 찬 기운이 퍼져”(from his feet up to his brest was come / The coold of deeth; 2799-2800) 섬뜩한 최후를 맞이한다. 마치 자신이 마스 신전에서 목도한 “입을 위로 벌린 차가운 죽음”(The colde deeth, with mouth gapyng upright; 2008)의 초상을 재현하듯이 말이다.

한편 머스캐틴이 ‘위엄의 극치’(a masterpiece of dignity; 183; cf. “Form” 922)이자 “테세우스가 작품 전반에 걸쳐 환기하고 재현하는 질서의 원칙”(the principle of order which Theseus both invokes and represents throughout the tale; 184; cf. “Form” 922)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 ‘원동력’(Firste Moevere)에 관

13) 『테세이다』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파괴적인 광경이 트라키아(Tracia)의 황량한 숲에 위치한 실제 마스 신전 안의 벽화에서 펼쳐진다(7.36-37). 따라서 초서가 원전의 신전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기사가 직접 목격한 것처럼 일인칭으로 묘사하는 (“There I saugh” [1995]; “Yet I saugh” [2011]; “Yet saugh I” [2017]; “Saugh I” [2028]) 광경 또한 그림 속의 그림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초서는 이 부분에서 기사가 본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애매하게 처리한다.

한 연설은 그의 주장대로 “무질서 너머의 질서”(the order beyond chaos; 190; cf. “Form” 929)에 대한 확신이나 “만물의 궁극적인 질서에 대한 믿음”을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작품 결말부에서 테세우스는 에밀리와 팔라몬을 불러 놓고 둘 사이의 결혼을 중재하기에 앞서 아르시테의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따라서 자신이 원형경기장을 통해 구현하려 했던 질서의 붕괴를) 우주 섭리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철학적인’ 연설을 하는데 그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1) 태초에 ‘원동력’이 있어 “사랑의 아름다운 사슬”(the faire cheyne of love)로 우주를 조화롭게 창조했다(2987-93).
- (2) 바로 이 원동력, 즉 주피터/절대자가 세상 만물에 끝을 정해 놓았다. 원동력 자체는 완전하고 영원하지만 이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은 단계적으로 불완전해지며 불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994-3040).
- (3) 따라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구나 아르시테처럼 명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죽는 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이다(3041-66).

이 중 (1), (2)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에티우스(Boethius, c. 480~c. 524)의 『철학의 위안』(*Philosophiae Consolationis*)을 근거로(2.8 metrum, 3.10 prosa, 4.6 prosa) 신의 섭리의 영원함·완전함과 대비되는 세속적인 것의 유한함·불완전함을 깨우치는 데 반해, (3)에 해당하는 부분은 명예롭게 죽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영웅주의의 역설’(heroic paradox)을 끌어들이어 아르시테의 죽음을 오히려 경축할 만한 일로 만든다. 하지만 문제는 보에티우스적 관점에서든 영웅주의적 관점에서든 테세우스의 연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데 있다. 보에티우스 식으로 보자면 테세우스가 이 대목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유한한 인간의 눈에 비친 세상의 무질서함 뒤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옳고 선한 신의 섭리, 즉 “무질서 너머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테세우

스는 정작 보에티우스를 원용하되 보에티우스의 진정한 메시지는 전달하지 못한다. 원동력/절대자의 의지를 사랑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을뿐더러 원동력이 완전무결하다는 것도 옳고 선하다는 맥락에서보다는 영속한다는 맥락에서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테세우스는 보에티우스적인 성찰을 영웅주의의 역설로 마무리함으로써 자신이 세우고자 하는 질서를 자신도 모르게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철학의 위안』 2권에서 철학의 여신은 어리석은 인간을 웃기고 울리는 ‘운명의 선물’(fortunae dona), 즉 찰나적인 세속의 가치 가운데 하나로 바로 ‘명예’(fama)를 꼽는다. 그리고 “명예란 아무리 오래 간다 한들 무한한 영원과 비교하면 하찮을 뿐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Ita fit ut quamlibet prolixi temporis fama, si cum inexhausta aeternitate cogitetur, non parva sed plane nulla esse videatur; 2.7 prosa; 220)임을 명쾌하게 논증한다. 따라서 테세우스의 연설의 철학적 토대를 이루는 보에티우스식 질서에 따르면 그가 아르시테의 죽음을 상쇄할 만한 것으로 여긴 명예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이가 오히려 배척하고 극복해야할 대상인 셈이다.¹⁴⁾ 설령 보에티우스를 배제하고 영웅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아르시테의 죽음은 그다지 이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야기 전반부에서 때로는 물리적인 감옥에 때로는 사랑의 은유적인 감옥에 갇혀 내내 끔끔대고 징징거린 것은 덮어둔다 해도 전쟁터가 아닌 마상시합장에서 그것도 다른 기사가 팔라몬을 사로잡은 덕에 승리를 거두며 시합이 멀쩡히 끝난 뒤에 황당하게 말에서 떨어져 사랑으로 으스스리진 가슴을 다시 으스스리뜨리고(“his brest tobrosten”; 2691) 몇날며칠 자리보전하다 죽음에 이른 것을 굉장히 영웅적이라고 추켜세우기는 힘들다. 작품 내내 아르시테가 (그리고 팔라몬 또한) 불멸하는 명예를 좇거나 의식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테세우스의 명예 예찬은 더더욱 작위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14) 에어즈 또한 “여기서 제시되는 기준이 『철학의 위안』의 저자 같은 신플라톤주의 성향의 형이상학자들이 만들어낸 기준과 정반대”(The criteria here are the antithesis of those cultivated by neoplatonizing metaphysicians such as the author of the *Consolation of Philosophy*; 192)임을 지적한다.

어설프게 씌워진 보에티우스와 영웅주의의 포장을 벗기고 나면 테세우스의 웅변에서 남는 것은 만물은 죽게 마련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성찰뿐인데 그렇다면 테세우스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아버지 아이게우스(Aegeus)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아르시테가 죽은 뒤 시름에 잠긴 테세우스에게 ‘이 세상 성쇠’(this worldes transmutacioun; 2839)를 아는 아이게우스는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

어떻게든 이 땅에 살지 않은 자 치고
 죽은 자 없듯이 ...
 언젠가 죽지 않은 자 치고
 이 세상에 산 자 없다. ...
 세상은 슬픔 가득 찬 통로일 따름이고
 우리는 이리저리 길을 가는 순례자이니
 죽음이 모든 세속적인 고통의 끝이다.

Right as ther dyed nevere man . . .
 That he ne lyvede in erthe in some degree,
 Right so ther lyvede never man . . .
 In al this world, that som tyme he ne deyde.
 This world nys but a thurghfare ful of wo,
 And we been pilgrymes, passynge to and fro.
 Deeth is an ende of every wordly soore. (2843-49)

이 초탈하다 못해 체념에 가까운 험벗은 깨달음이 물론 테세우스에게 만족스러울 리 없다. 그러나 테세우스 또한 운명의 임의성과 불확정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팔라몬과 아르시테에게(1250-74; 1302-21; 2771-79), 그리고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간다고 믿고 싶은 그 자신에게 이 이상의 답을 주지 못한다. 테세우스가 ‘사랑의 아름다운 사슬’에 대해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주피터가 부재하는 가운데 아르시테를 죽음에 이르게 한 세상은 음험한 새턴(Saturn), 즉 토성의 지배를

받으며,¹⁵⁾ 따라서 ‘익사’(drenchyng), ‘교살’(stranglyng and hangyng by the throte), ‘은밀한 독살’(pryvee empoysonyng), “복수와 단호한 응징”(vengeance and pleyne correccioun), ‘차가운 질병’(maladyes colde), “어두운 반역과 오래된 음모”(the derke tresons, and the castes olde)가 판치는 몸서리치게 암울하고 무질서한 곳이다(2453-69). 이렇게 보면 위대한 테세우스는 자신과 팔라몬의 곤경이 ‘운명’(fortune)과 “토성의 어떤 사악한 면 또는 기질”(Som wikke aspect or disposiciun / Of Saturne; 1087-88) 탓이라고 진단한 아르시테의 최초 인식에서 결국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니 패터슨의 주장처럼 『기사 이야기』에서 “아테네의 문명화 과업의 함묵적 직선성”은 끝내 “테베의 퇴행적인 반복성”으로 귀결하고 만다.

이 질서의 취약함에 대해서는 최근 평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젠더가 쟁점이 되면 『기사 이야기』는 여전히 거의 예외 없이 무식한 질서를 뻔뻔스럽게 수호하는 작품으로 읽힌다. 그래서 여성성이 남성적 질서를 잠식하는 양상에 주목하는 래스캐야조차 “테세우스가 에밀리외의 외부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며”(he has an absolute control over Emelye’s exterior world), 따라서 “『기사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테세우스의 권력이 막강함을 예증하는 역할을 함”(women in the *Knight’s Tale* serve to illustrate the potency of Theseus’s power; 75)을 잊지 않고 지적한다. 당연히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테세우스와 화자가 대변하는 질서가 봉건적이고 기사도적이며 가부장적인 것일진대 앞서 살펴보았듯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한 이 질서가 유독 가부장제를 강요할 때만 ‘막강함’을 끝까지 유지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기사 이야기』에서 테세우스가 다스리는 아테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양대 요인은 테베, 즉 크레온(Creon)·팔라몬·아르시테로 대변되는 남성의 무절제한 폭력·과잉 경쟁과 아마존, 즉 히폴리타·에밀리로 대변되는 남성의 지배·결속을 위협하는 여성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테세우스는 크레온을 정벌하고 팔라몬과 아르시테가 야

15) 패터슨 역시 작품 속의 세상에 주피터가 부재하는 것을 테세우스의 연설이 ‘심각하게 문제적’(deeply problematic)일 수밖에 없는 근거로 꼽는다(203).

기한 무질서를 질서의 틀 안에 다시 편입시키듯이 히폴리타와 에밀리의 아마존적 과거와 자유의지 또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성공적으로 가두어 놓는다. 게다가 화자는 히폴리타와 에밀리의 발언권마저 빼앗아 버리니 『기사 이야기』만 놓고 보면 여성의 '외부 세계'는 정말 철저히 억압당하는 셈이다. 하지만 테베 남성들에 대한 통제가 결국 완전하지 못한데 아마존 여성들에 대한 통제는 과연 완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테세우스가 에밀리의 '외부 세계'를 통제하는 것처럼 '내면 세계' 또한 통제한다고 할 수 있을까.

『기사 이야기』는 기사도 질서의 자기모순을 슬며시 드러내듯이 가부장제 질서의 견고한 표면에 존재하는 불안과 염려의 미세한 균열 역시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는 작품이다. 가령 마상시합 전에 에밀리가 다이애나 신전에서 하는 기도는 작품 속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검열되고 봉쇄되는 방식을 예시하는 동시에 그 봉쇄와 검열이 여성의 '내면 세계'에 자리 잡은 무질서한 욕망에까지지는 힘을 미칠 수 없음 또한 확인해준다. 에밀리는 자신에게 허용된 유일한 대사인 이 기도에서 “평생 처녀로 살고 싶지 결코 사랑 받거나 남의 아내가 되고 싶지는 않다”(I / Desire to ben a mayden al my lyf, / Ne nevere wol I be no love ne wyf; 2304-06)는 소망을 분명히 밝힌다. 가부장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이 소망은 물론 테세우스와 화자뿐 아니라 하늘의 신들에 의해서도 안전하게 묵살되고 교화된다. 그리고 테세우스에 의해 마스 신전 안에 겹겹이 감금된 그림 속의 무질서처럼 보호막에 둘러싸여 철저히 차단된다. 에밀리의 자유의지는 공간적으로 보면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 다이애나 신전 안에서 발화되고 그 신전은 다시 테세우스의 원형경기장 안에 들어가 있으며, 시간적으로 보면 그녀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팔라몬과 그를 이기기를 원하는 (그래서 결국 그녀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아르시테의 기도에 의해 움짹달짝 못하게 포위되어 있다. 또한 앞뒤로 포진한 두 차례 중요한 침묵, 즉 테세우스가 그녀를 상품으로 걸고 팔라몬과 아르시테 사이의 마상시합을 주선할 때(1854-61), 그리고 아르시테 사후에 그녀에게 팔라몬과 결혼할 것을 종용할 때(3075-89) 그녀가 침묵을 지키는 장면들 사이에 끼여 안타깝게 무장해제 당한다. 이처럼 독신 의지를 밝히는 에밀리의 유일한 대사, 그것

도 독백이 겹겹이 통제막에 둘러싸여 무효화되는 것은 한편으로 테세우스와 화자가 대변하는 가부장제 질서가 여성을 그만큼 철저하게 구속함을 말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내면 세계’가 표출되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무질서에 대한 화자의 불안이 결코 작지 않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에밀리외의 기도는 마스 신전 벽화처럼 질서의 벽 안에 빈틈없이 갇혀 있어도 여전히 “두려우리만치 적대적인 요소”일 수 있다.

화자가 즐겨 쓰는 ‘오쿠파티오’(occupatio) 기법, 즉 하지 않을 이야기의 내용을 은근슬쩍 언급하고 넘어가는 전략 또한 여성의 잠재적인 위협을 측량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데 일조한다. 글머리에서 인용했듯이 화자인 기사는 테세우스의 아마존 정벌기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무엇을 이야기하지 않을지는 비교적 소상히 알려준다.

테세우스와 그의 기사도의 힘으로
어떻게 여성국이 정복되었는지
그때 아테네인과 아마존족 사이에
얼마나 대단한 전투가 벌어졌는지
스키티아의 아름답고 용맹한 여왕
히폴리타가 어떻게 포위되었는지
그들의 결혼식날 벌어진 연회와
그들이 귀향길에 만난 폭풍우가 어떠했는지
듣기에 너무 길지 않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을 게요.

And certes, if it nere to long to heere,
I wolde have toold yow fully the manere
How wonnen was the regne of Femenye
By Theseus and by his chivalrye;
And of the grete bataille for the nones
Bitwixen Atthenes and Amazones;
And how asseged was Ypolita,

The faire, hardy queene of Scithia;
 and of the feste that was at hir weddyng,
 And of the tempest at hir hoom-comyng. (875-84)

남성의 지배에 반기를 들어 남편을 살해하고 여성들만의 왕국을 건설한 아마존족의 이야기를 시간 핑계 삼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여성의 위협적인 존재를 서사의 표면에서 지워버리려는 가부장제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사 이야기』의 첫 오쿠파티오인 이 구절은 화자가 삭제하려는 내용이 무엇인가 조목조목 말해주기에 가부장제의 검열 효과를 희석할 뿐더러 검열이 작동하는 원리를 적시하는 역할까지 한다. 삭제된 이야기, 즉 『테세이다』 1~2권의 내용이 테세우스의 무력의 우위가 낭만적 사랑과 결혼의 이상으로 포장되고 여성이기를 거부하는 아마존족이 패배하는 순간 다시금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새롭고 우아한”(belle, leggiadre, fresche e graziose; 1.132) 여인들로 돌아가는 과정을 전형적인 가부장제의 관점에서 서술한다는 것을 알고 나면¹⁶⁾ 이 검열의 이데올로기적인 효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대단한 전투’가 왜 대단했는지, 결혼식 피로연의 분위기가 정확히 어떠한지, 돌아가는 길에 만난 ‘폭풍우’가 실제 폭풍우인지 은유적인 의미의 폭풍우인지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¹⁷⁾ 여성이 야기하는 무질서의 실체를 모호하게 만들고 그에 대한 테세우스의 통제의 완결성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기사 이야기』의 마지막 오쿠파티오는 여성의 ‘내면 세계’를 서사에서 배제함으로써 여성을 더 불가해한 존재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아르시테의 장례식 장면에서 이르러 화자는 작품을 통틀어 가장 긴 오쿠파티오를 구사하면서(2919-66), 즉 장례식장의 이런저런 풍물을 묘사하지 않겠다는 구실 아래 살살이 훑고 지나가면서¹⁸⁾ “사람들이 장작에 불을 붙일 때 에밀리가 어떻게 기절

16) 『테세이다』는 참조한 이탈리아어 본과 영역본 모두 행수를 표기하지 않아 권수와 연수(聯數)로 인용한다.

17) 헨슨은 이 폭풍우가 “사나운 여성을 폭풍우처럼 거칠게 길들인 것”(tempestuous taming of the wild woman; 218)을 의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했는지,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녀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Ne how she swowned whan men made the fyr, / Ne what she spak, ne what was hir desir; 2943-44) 말하지 않겠다고 못 박는다. 아르치테스(Arcites)가 임종하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따라 죽고 싶다는 열녀다운 ‘소망’을 장황하게 피력한 바 있는(10.68-82)¹⁹⁾ 『테세이다』의 에밀리아(Emilia)는 이 대목에서 약혼자의 죽음을 기리는 조신한 여성에게서 남성들이 기대할 법한 상투적인 애도의 말을 한 뒤에 슬픔에 못 이겨 혼절함으로써 남성의 환상과 ‘보호본능’을 적절히 자극한다(11.41-43). 따라서 에밀리아의 말과 ‘소망’은 완벽하게 안전한 것으로 드러나고 낱낱이 윤곽지어진다. 그러나 『기사 이야기』의 화자는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녀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밝히지 않음으로써, 하지만 무언가 말을 하고 무언가 소망을 품었다는 것은 내비침으로써 에밀리아의 의지와 감정을 남성의 언어로 정의하거나 걸러내기 힘든 영역에 위치시킨다. 다시 말해 『기사 이야기』에서 여성의 외적인 존재가 철저히 감시되고 통제되는 데 반해 여성의 내적인 존재는 거의 언제나 베일에 가려 있다. (보수적인 남성 화자가 베일의 이면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화자가 상상한 (혹은 염려한) 여성의 욕망이 에밀리에 의해 발화되는 예외적인 순간, 아니면 그 지워진 흔적이 발견되는 순간 테세우스와 화자의 가부장제 질서는 패터슨의 ‘기사도 정체성’처럼 “빈틈없이 지켜지고 집요하게 주장”될 필요가 있기에 역설적으로 “침식과 쇠퇴에 취약”한 것이 되어버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사 이야기』가 페미니스트 또는 프로토펬미니스트(proto-Feminist) 텍스트일 수는 없다. 단 한번 자유를 꿈꾸었다고 해서 에밀리가

18) 화장(火葬)용 장작으로 쓰인 나무 이름을 대지 않겠다면서 무려 21개(!)나 열거하는 것이 가장 단적인 예이다(2921-23).

19) 『기사 이야기』에서는 아르치테의 죽음에 대한 에밀리아의 반응 또한 오쿠파티오로 처리된다.

그녀가 조석으로 어떻게 울었는지 말하려고

이야기를 끌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소?

What helpeth it to tarien forth the day

To tellen how she weep bothe eve and morwe? (2820-21)

여성해방의 선구자일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젠더에 초점을 맞추면 『기사 이야기』, 아니 기사가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남성적인 권위가 여성을 억압하고 대상 화하고 말살하는 내용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갈라진 작은 틈이 보인다고 이데올로기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사 이야기』를 신비평가들처럼 (또는 다수 페미니스트들처럼) 그 자체로 완결된 작품, 즉 “잘 만들어진 항아리”(a well-wrought urn)로 따로 놓고 보아서는 초서의 여성관, 나아가 세계관에 대해 입체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기사 이야기』의 위압적이면서도 묘하게 불안정한 질서를 『캔터베리 이야기』 전체를 지배하는 무질서의 시학에 비추어 읽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선 『기사 이야기』는 독립된 작품으로 읽을 수 있는 만큼 『캔터베리 이야기』를 여는 또 다른 프롤로그로 읽을 수가 있다. 화자와 테세우스가 구축하는 기사도적이고 가부장제적이며 서사시적인 질서는 이야기 안에서 “끝없이 위협하는 혼돈의 힘”에 잠식당하듯이 이야기 밖에서 순례객의 무질서한 반응과 그들이 하는 천차만별의 이야기들에 탈색되어 효력을 잃는다. 예컨대 방앗간 주인(Miller)은 기사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취기를 핑계 삼아 이야기의 순서가 기사에게서 수사(Monk)에게로 질서 있게 넘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고상한 이야기’(a noble tale; 3126)를 빙자한 음담패설로 기사가 한 ‘고상한 이야기’(a noble storie; 3111)를 보란듯이 ‘되값는다’(quite; 3127). (기사가 수호하는 질서의 유효성은 이어지는 다른 이야기들에서도 거듭 검증된다.) 반면에 『기사 이야기』에서 불완전하게 검열된 여성 주체의 문제는 『변호사 이야기』(*The Man of Law's Tale*)와 『학생 이야기』(*The Clerk's Tale*), 무엇보다 『바스 여장부 서문과 이야기』(*The Wife of Bath's Prologue and Tale*)에서 본격적으로 탐구되며, 『기사 이야기』를 특징짓는 장르상의 애매함은²⁰ 『캔터베리 이야기』 전편에 걸쳐 일찍이 어떤 이야기 모음에서도 행해진 적 없는 다양한 장르 실험을 촉발한다. 이렇게 보면 『기사 이야기』는 29명의 순례객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인물을 화자로 내세워²¹ 『캔터베리

20) 로맨스적인 요소와 서사시적인 요소의 혼재에 대해서는 Cooper 91-107를 참조할 것.

21) 보수성에서 기사와 쌍벽을 이루는 교구신부(Parson)에게 『캔터베리 이야기』의 마치

이야기』를 읽는 데 필요한 대략의 문제 제기를 하는 셈이다. 세속 귀족을 대변하는, 따라서 “우연이든 운이든 운명이든”(Were it by aventure, or sort, or cas; 844) 이야기 게임의 첫 화자로 지목될 자격이 충분한 기사는 적대적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하는 근본주의적인 해법을 제시하지만 그 해법은 이데올로기, 계급, 젠더, 장르를 망라하는 전방위적인 혼돈을 이야기가 지속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이상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 『캔터베리 이야기』의 진정한 힘은 기사와 테세우스의 이름으로, 그리고 질서의 이름으로 억누를 수 없는 무질서의 편재성(遍在性)과 역동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사 이야기』는 무질서의 그림을 질서의 액자에 끼워 넣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또한 『캔터베리 이야기』 전체의 축소판이라 할 만하다. 어찌 보면 『기사 이야기』의 서사다운 서사는 감옥에 갇힌 필라몬과 아르시테가 에밀리와 사랑에 빠지는 장면에서 시작해 아르시테가 마상시합에서 이긴 뒤에 목숨을 잃는 장면에서 끝난다고 할 수 있다. 해피엔딩이 없는 이 혼란스럽고 부조리한 연애담이 앞쪽에 두 겹으로 결혼식(테세우스와 히폴리타)과 장례식(테베 전쟁의 희생자들)의 테두리를 대고 뒤쪽에 다시 두 겹으로 장례식(아르시테)과 결혼식(필라몬과 에밀리)의 테두리를 댄다고 해서 질서정연해질 수 없듯이, 다양한 사회 집단의 다성적인 목소리를 담은 온갖 장르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두 겹의 틀로 감싼다고 해서, 즉 앞에 『총서문』(*The General Prologue*)과 『기사 이야기』를 붙이고 뒤에 『교구신부 이야기』와 철회사(Chaucer's Retraction)를 붙인다고 해서 『캔터베리 이야기』의 무질서의 시학이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시인 초서는 정확히 어느 지점에 서서 질서와 무질서의 투쟁을 바라보는 것일까. 초서는 일부 페미니스트 평자들이 당연시하듯 기사/테세우스와 자신을 동일시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일부 맑스주의 평자들이 주장하듯 그들을 전격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도 아니다. 런던의 상인 가문에서 태어나 궁정 안팎에서 왕과 귀족을 유능하게 보필한 대가로 향사(esquire) 지위에 올랐

막 이야기라고 할 만한 이야기를 배정한 것 또한 흥미로운 일이다.

고 오랜 관료 생활 중에 귀족과 상인을 모두 상대해야했던 초서는 사회적 위치로 보나 세계관으로 보나 기사/테세우스가 대변하는 질서에 속한 것도 아니고 속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패터슨의 말마따나 바로 이 ‘애매함’(ambiguity; 181) 또는 ‘삐딱함’이 『기사 이야기』와 『캔터베리 이야기』, 나아가 그의 작품 세계 전체에서 초서가 기존 사회의 권위와 질서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였을 것이다.

초서가 이 세상과 맺은 관계는 전기상으로나 이데올로기상으로나 대립적이라기보다는 삐딱한 것이어서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 『기사 이야기』에서 초서는 약간 떨어져 있는 내부자에게만 가능한 종류의 기민한 판단을 보여준다.

Chaucer's relation to this world, both biologically and ideologically, was not oppositional but oblique, a little off to the side; and in the *Knight's Tale* he provides the kind of shrewd assessment that is possible only for the slightly distanced insider. (198)

패터슨은 나중에 『기사 이야기』가 “초기 작품의 기사도 맥락에 대한 초서의告别사이자 기사도가 억압한 것, 즉 역사 속에서 변화하는 개인 주체를 이제 되돌려 놓겠다는 초서의 자기 약속”(both Chaucer's farewell to the chivalric context of his earlier writing and his promise to himself that what chivalry had repressed—the individual subject in time and motion—was now about to return; 230)이라고 하여 기존 질서에 대한 초서의 관계를 다시금 ‘대립적’인 것으로 설정하지만, 『캔터베리 이야기』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초서는 아무래도 “약간 떨어져 있는 내부자”의 태도를 견지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 같다. 기사와 테세우스의 질서를 거부하지 않지만 세상이 그 질서대로 굴러가지 않음을 너무 잘 알고, 교구신부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설교가 정당임을 알지만 생전의 트로일러스(Troilus)처럼 “아름다운 꽃인양 쉬어 지는 이 세상”(This world that passeth

soone as floures faire; *Troilus and Criseyde* 1841)의 유혹을 차마 떨치지 못하며, 만의 소망처럼 “여성이 주변이 아닌 중심에 있어 모든 인간의 행동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정도로”(to the point where woman is at the centre instead of at the periphery, where she becomes the norm against which all human behaviour is to be measured; 3) 여성중심적인 사고를 하지는 않고 또 당연히 할 수도 없지만 가부장제의 모순과 여성의 역사적인 위치를 어떤 동시대 작가보다 예리하게 짚어낼 수 있을 정도로는 시대를 앞서간 것이 초서이고, 세상 모든 것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이다가도 어느 한 순간 죽은 트로일러스의 영혼처럼 저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삶으로부터 비판적인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 또한 초서라고 하면 아마 큰 과장은 아닐 듯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소’와 ‘밭’의 은유를 끌어들이면 초서의 『기사 이야기』는 『캔터베리 이야기』의 쟁기를 끌기에 결코 ‘나약한 수소’가 아니다. 농부인 초서는 “갈아야 할 넓은 밭”의 지형을 충분히 감안해 소를 고르고 길들여 멩에를 씌웠다. 소가 할 일이 종자를 퍼뜨리거나 투우장에서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니라 넓고 거칠고 ‘무질서한’ 이야기의 밭을 미리 한번 가는 것이니 ‘황소’가 아니고 ‘불끈 수소’인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고 축복인 셈이다. 물론 왜 암소가 아니고 수소가냐고 하면 딱히 할 말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초서가 암소를 몰고 와 『캔터베리 이야기』의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을 아쉬워한다면 초서와 그의 시대에서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지닌 우리의 ‘계몽’된 자아의 반영을 보기를 너무 고집스럽게 갈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주제어: 초서, 『기사 이야기』, 질서, 무질서, 신비평, 신역사주의, 페미니즘

인용문헌

- Aers, David. *Chaucer, Langland and the Creative Imagination*. London: Routledge, 1980.
- Allen, Valerie. Rev. of *Geoffrey Chaucer*, by Jill Mann. *Review of English Studies* ns 44 (1993): 405-06.
- Blamires, Alcuin. *Chaucer, Ethics, and Gender*. Oxford: Oxford UP, 2006.
- Boccaccio, Giovanni. *The Book of Theseus*. Trans. Bernadette Marie McCoy. New York: Medieval Text Association, 1974. [English translation of the *Teseida*.]
- . *Teseida delle Nozze d'Emilia*. Ed. Aurelio Roncaglia. Bari: Gius Laterza, 1941.
- Boethius. *Philosophiae Consolationis*. Trans. S. J. Tester. *The Theological Tractates and the Consolation of Philosophy*. Loeb Classical Library. Ed. G. P. Goold. Cambridge: Harvard UP, 1973. 130-435.
- Brooks, Cleanth. “The Formalist Critics.” *Kenyon Review* 13 (1951): 72-81.
- Burger, Glenn. *Chaucer's Queer Nation*.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2003.
- Carruthers, Mary J. Rev. of *Geoffrey Chaucer*, by Jill Mann. *Speculum* 68.2 (1993): 535-37.
- Chaucer, Geoffrey. *The Riverside Chaucer*. Ed. Larry Benson. 3rd ed. Boston: Houghton, 1987.
- Cooper, Helen. *The Structure of the Canterbury Tales*. Athens: U of Georgia P, 1983.
- Cox, Catherine S. *Gender and Language in Chaucer*. Gainesville: U of Florida, 1997.
- Crane, Susan. *Gender and Romance in Chaucer's Canterbury Tales*. Princeton: Princeton UP, 1994.

- Delany, Sheila. *The Naked Text: Chaucer's Legend of Good Women*.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94.
- Dinshaw, Carolyn. *Chaucer's Sexual Poetics*. Madison: U of Wisconsin P, 1989.
- Greenblatt, Stephen. *Renaissance Self-Fashioning*. Chicago: U of Chicago P, 1980.
- Hansen, Elaine Tuttle. *Chaucer and the Fictions of Gender*.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92.
- Huizinga, Johan. *The Waning of the Middle Ages*. Trans. F. Hopman. London: Edward Arnold, 1924.
- Hulbert, J. R. "What Was Chaucer's Aim in the *Knight's Tale*?" *Studies in Philology* 26 (1929): 375-85.
- Knapp, Peggy. *Chaucer and the Social Contest*. New York: Routledge, 1990.
- Laskaya, Anne. *Chaucer's Approach to Gender in the Canterbury Tales*. Cambridge: D. S. Brewer, 1995.
- Mann, Jill. *Geoffrey Chaucer*. Feminist Readings Series.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1991.
- Martin, Priscilla. *Chaucer's Women: Nuns, Wives and Amazons*. London: Macmillan, 1990.
- McAlpine, Monica E. *Chaucer's Knight's Tale: An Annotated Bibliography 1900 to 1985*. Toronto: U of Toronto P, 1991.
- Muscatine, Charles. *Chaucer and the French Tradition*.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57.
- . "Form, Texture, and Meaning in Chaucer's *Knight's Tale*." *PMLA* 65 (1950): 911-29.
- Patterson, Lee. *Chaucer and the Subject of History*. Madison: U of Wisconsin P, 1991.
- Percival, Florence. *Chaucer's Legendary Good Women*. Cambridge: Cambridge

- UP, 1998.
- Rigby, S. H. *Chaucer in Context: Society, Allegory, and Gender*. Manchester: Manchester UP, 1996.
- Root, R. K. *The Poetry of Chaucer*. Boston: Houghton, 1906.
- Schibanoff, Susan. *Chaucer's Queer Poetics: Rereading the Dream Trio*. Toronto: U of Toronto P, 2006.
- Sedgwick, Eve Kosofsky.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New York: Columbia UP, 1985.
- Strohman, Paul. *Social Chaucer*. Cambridge: Harvard UP, 1989.
- Sturges, Robert S. *Chaucer's Pardoner and Gender Theory: Bodies of Discourse*. London: Macmillan, 2000.
- Weisl, Angela Jane. *Conquering the Reign of Femeny: Gender and Genre in Chaucer's Romance*. Cambridge: D. S. Brewer, 1995.

Chaucer's "Wayke Ox": Rereading *The Knight's Tale*

Abstract

Hyonjin Kim

The Knight's Tale has recently degenerated into a "wayke ox" of Chaucer scholarship: critical interpretations of the tale have hit a dead end, on the one hand, because the New Critical legacy of Charles Muscatine is too potent to overcome, and, on the other, because the tale itself is too obviously masculine and too outrageously patriarchal. Major critical camps, including New Historicism and Feminism, continue to employ Muscatine's model of "the struggle between noble designs and chaos," or between order and disorder. While a greater number of recent critics, of which the New Historicist Lee Patterson is a prominent example, recognize the artificiality and temporality of order, most Feminist readers are baffled by the seeming absoluteness of the patriarchal order Theseus and the Knight impose. The present article suggests that what Patterson views as the self-destructive nature of order is applicable to the order of patriarchy, as well. The tale, in fact, functions nicely as a second prologue to, and also as a miniature of, the entire *Canterbury Tales*. The ideological bulwark of *The Knight's Tale* is erected only to be toppled in the subsequent tales, whereas the twofold frame of wedding and funeral, which marks both ends of the tale, is reproduced in a much larger scale in the tale collection as a whole, where the twofold lineup of normative framing devices (*The General Prologue* and *The Knight's Tale* at the beginning and *The Parson's Tale* and Chaucer's Retraction at the end) unsuccessfully overrule the chaotic worlds created by "a compaignye / Of sondry folk."

Key Words

Chaucer, *The Knight's Tale*, order, disorder, New Criticism, New Historicism, Feminism